

社會階層意識의 변화와 전망

金 彩 潤

(서울대학교 사회학)

〈目 次〉

- I. 머리말—階層과 階級
- II. 한국사회의 階層構造
- III. 社會階層意識
 - 1. 社會階層意識의 意義
 - 2. 勞動者階層의 社會階層意識
 - 3. 中間階層의 社會階層意識
- IV. 社會階層意識의 展望

1. 머릿말—階層과 階級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인류 역사와 같이 오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대사회로 넘어 오면서 平等社會와 開放社會에로의 지향은 모든 사회의 이상이자 목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든 이데올로기적이든 사회정책의 초점이 되어 왔다. 사회적 이상과 사회정책의 목표로 제시되는 평등은 때로는 실제로 존재하는 불평등과 상충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위기의 씨앗이 되어 왔으며, 그러한 갈등과 위기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이루어 왔다.

사회계층(social strata) 혹은 사회 계층화(social stratification)란 構造化된 社會的 不平等과 관련된다. 社會階層化 즉, 구조화된 불평등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나 개념들은 상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것과 관련되는 개념이나 용어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貪富간의 격차, 所得階層간의 격차등 그 예는 우

리의 주변에서 다반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社會階層에 대한 觀心은 產業化가 전개되어 社會階層構造의 틀이 잡히고 거기에서 파생있는 갈등과 위기 등이 사회적인 잇슈로 등장하게 되면서 점차 고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學問的으로 보면 70년대까지는 서구학계의 概念이나 理論들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나, 80년대에 이르면 소장사회학도들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물을 적지 않게 내어 놓게 된다. 이들이 연구가 아직은 계층구조의 객관적 존재에 대한 고찰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뿐 사회변동을 매개하는 社會階層意識 등의 연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학계에서의 그러한 관심의 축적이 기여한 바는 무시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韓國人의 社會階層意識의 變化를 훑어보기 위하여 먼저 그 전체가 되는 階級構成의 실태 변화를 일별하고자 한다. 먼저 社會的 不平等을 보는 두가지 대비되는 개념—階層과 階級—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와 계층의식을 고찰하는데 요구되는 이론적 논의들은 필요에 따라 적의하게 언급하도록 할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관심이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하여 사회계층의식의 실태와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는만큼 理論的인 論議는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할것이다.

社會階層 혹은 社會階級⁽¹⁾이라는 용어는 사회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도 무관심할 수 없는 용어로 되어 왔다. 그것은 이를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이론적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용어가 모두 누구나가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인 不平等과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개인 또는 집단은 位階的으로 배열되어 있고 서로 不平等한地位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不平等을 自然發生의이며 사회가 존재하는 한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서로 불평등한 각각의 사회법주를 「階層」이라고 개념화한다. 이 경우 階層은 사회적 보상이나 희소가치의 分配에 있어 동일한 지위를 정하는 사람들의 법주로 규정될 수 있다. 社會的 不平等을 階層으로 개념

(1) 계급과 계층의 개념에 대해서는拙稿, “사회계급의 개념도식”(社會學論卷1, 1964)과 “사회계층개념의 연구”(省谷論叢6, 1975)를 참조하라. 이를 개념이 함축하는 바의 이론적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는 한상진, “계급이론과 계층이론”(한상진 편, 「계급이론과 계층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4)을 참조하라.

화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사회를 이해하는 특정의 관점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란 몇 개의 지위법주의 重層的 構造 혹은 연속적인 上下優劣構造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한 사회를 社會的 地位의 상하의 차를 가진 몇몇 범주의 重層으로 보고 그 각각의 사회범주를 社會階層이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을 階層으로 개념화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社會의 뿐이며, 階層이란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계층은 사회를 관찰하는 사람이 분류·식별의 편의를 위하여 어떤 특정의 기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조작적·분류적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으로 분류기준 여하에 따라서 파악될 계층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들은 계층을 이를테면 소득수준에 따라 上·中·下의 세등급으로 나누거나 혹은 좀더 자세히 6등급이나 9등급으로 분류한다.

社會的 不平等을 階級으로 개념화하는 사람들은 사회란 명목적인 것에 불과 하며 實在하는 것은 계급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말하는 階級은 관찰자가 분류를 위해 만들어 낸 操作物이 아니라,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社會的 實在이다. 계급을 계층과는 달리 이렇게 개념규정하는 사람들은 각 종의 사회적 조건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여러 사회범주 간에는 반드시 어떤 사회적 거리를 가진 실체로서의 사회집단과 집단의식이 생겨나게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각 계급간에는 단순히 지위의 연속적 상하우열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支配·服從관계가 존재하며, 계급구성원은 계층에 있어서는 달리 이른바 階級意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계층의식이란 엄밀하게는 계급의식인 셈이다. 그것은 개인의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가 자신이 속한 階級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계급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사회발전과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實在하는 사회적 의식으로서의 계층의식은 바로 階級意識인 셈이다. 왜냐하면 계층개념은 계급개념에 대하여 실재적·관계적인 개념일 수가 없고, 따라서 계층의식은 그 존재를 고려할 여지가 좁기 때문이다. 즉, 계층개념 속에는 단지 동일한 계층 내부에서의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의 동질성 등이 논의될 수 있을 뿐, 다른 계층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좁은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수준에서는 계층과 계급의 개념은 서로 혼동되어 쓰이고 있으며 계급개념 그것도 또한, 애매하고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계급개념의 역사를 주적한 오쏘우스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계급이라는 용어는 봉건적 신분사회가 해체된 이후에 출현한 새로운 사회구조와 새로운 불평등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줄곧 그런 의미로 통용되어 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오쏘우스키는 階級概念의 歷史를 살피고 아담스미드를 비롯, 18세기의 저술가들에게 있어서는 계급이라는 용어가 간혹 집단이나 신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막연하게 쓰여오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르러 전문적인 용어로 쓰여지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²⁾ 그리하여 계급이라는 용어는 신분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산업사회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집단들을 가리키는 일반개념으로서 근대의 사회이론, 정당의 강령,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선언문에 이르기까지 널리 통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계급 이론을 고도로 발전시킨 마르크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계급개념을 다른 사람의 노동에 대한支配라는 개념과 결합시켰다. 그는 노동의 지배의 기초를 生產手段의 私有에서 찾고 그리하여 계급을 生產手段과의 관계에서 정의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정의는 레닌의 계급개념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레닌에 의하면 계급은 “歷史的으로 規定된 社會的 生產體系 속에서 차지하는 位置, 生產手段에 대한 關係, 궁극적으로는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富의 뜻의 크기와 그 획득방법이 상이한 사람들의 集團”이라고 規定하고, 따라서 그것은 “社會的 生產體系 속에서 점하고 있는 地位의 相異로 인해 그 중 한편이 다른 한편의 勞動을 전유할 수 있게 되는 社會關係”⁽³⁾라고 덧붙였다.

계급이라는 개념이 과연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적인 不平等構造나 계층현상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회의 계층현상까지도 포괄하는 것인지는 분명치가 않다.

마르크스 자신도 階級이 資本主義社會構造에 특유한 계급을 뜻하는지, 아니면 원시사회의 최초의 공동체가 사라진 이후 인류의 歷史에 存在해온 모든 종류의 계급들을 뜻하는지, 階級이라는 用語에 포함되어 있는 이 두가지의 의미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은 –이들은 대개 階層의 多次元性을 主張한 베버의 영향을 받았다–계급은

(2) Stanislaw Ossowski, *Class Structure in the Social Consciousness*, (NY : The Free Press) 1963; 정근식譯, 「사회의식과 계급구조」, p. 125 참조.

(3) S. N. Nadel, *Contemporary Capitalism and the Middle classes*, (NY : International Publishers) 1982, p. 19에서 개인용.

사유재산의 소유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던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적인 계급을 뜻하는 대체 계층은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차원의 불평등 요인—權力, 威光等—에 의한 지위집단형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여 후자를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컨대 구조화된 불평등 현상을 계층이라고 하든 계급이라고 하든 그것이 별로 문제될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 「의식을 지닌 계층」을 계급이라고 정의하는 일부의 관례에 따르는 경우에는 계층의식보다는 계급의식이 보다 적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韓國社會의 階層

계층구조의 變化는 산업화가 추진된 지난 25년간 한국사회가 겪은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가장 극적인 것이었다。⁽⁴⁾

먼저 한국社会의 계층구조 변화의 歷史的 過程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사회에는 조선조 후기부터 資本主義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으나 일제의 침략으로 그 발전이 왜곡되었음을 주지하는 바와 같다. 甲午更張으로 양반·중인·양인·천민이라는 네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신분제도가 법적으로 타파되어 公式的으로는 다분히 평등화되었으나, 그 뒤 일제하의 계층구성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일제시대의 주요계층으로는 地主層, 일본의 資本家, 그리고 다수의 勞動者와 農民 및 都市의 貧民을 들 수 있다.

해방후에는 전반적인 경제적 변화와 農地改革으로 지배층의 핵심부분이었던 地主層이 사회계층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60년대 이후부터 資本主義의 階層分化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현재까지 이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5년간의 산업화로 한국社会의 계층구조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量的構成面에서 뿐만 아니라 質的으로도 큰 변화를 겪었다.

(4) 한국사회계층구조에 관한 경험적 연구업적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영모, 「한국사회계층연구」, 일조각, 1982; 서판모, 「현대한국社会의 계급구성과 계급문화」, 한울, 1984; 홍두승,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이만갑교수 회갑기념논총, 범문사, 1983); _____, 「직업 및 계층구조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한국사회학회 편), 현대사회연구소, 1983; _____,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5권 3호, 1983.

오늘날의 한국사회계층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으나 자본가계급, 중간계급, 노동자계급, 그리고 농촌부문의 몇 가지 계급등이 그 주요한 범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⁵⁾ 인구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한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지난 25년간의 한국사회의 계급구조의 변화와 실태를 살펴보면 그것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農村의 獨립자영농과 농촌하류계층(영세농·농업노동자·농촌실직자 등)의 비중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왔다는 점이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하류 계급의 감소는 특히 두드러지는데, 1960년에는 경제활동인구(20~25歳)의 24%가 이 계층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80년에 이르면 그것은 3분의 1에 해당되는 8%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표2>에서 보면 獨立自營農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 中產層 또한 그 비중이 절반정도로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量的인 구성면에서 中間階級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新中間階級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表1> 한국사회의 계급구조 변화, 1960~1980

(단위 : %)

계급구분	1960	1970	1975	1980
중상계급	0.9	1.3	1.2	1.8
신중간계급	6.6	14.2	15.7	17.7
구중간계급 (자영전문직)	13.0 (0.3)	14.8 (0.5)	14.5 (0.6)	20.8 (0.6)
(자영상인)	(6.7)	(9.6)	(9.7)	(12.0)
(자영서비스직)	(0.4)	(0.5)	(0.6)	(0.8)
(자영기능인)	(5.7)	(4.2)	(3.6)	(7.4)
근로계급	8.9	16.9	19.9	22.6
도시하류계급	6.6	8.0	7.5	5.9
독립자영농	40.0	28.0	28.2	23.2
농촌하류계급	24.0	16.7	12.9	8.1
합계	100.0	100.0	100.0	100.0
(N)	(5,210,137)	(59,332)	(61,715)	(154,630)

*자료 : 洪斗承,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1983), p. 82에서 인용.

(5) 연구자에 따라서는 더욱 細分化되기도 한다. 예컨대 金泳模, 洪斗承은 구중간계급과 신중간계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徐寬模은 周邊階級등을 식별하고 있다.

다. 여기 중간계급의 범위와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의 견해가 있음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 한편에서는 이를테면 농촌의 중산층(자작농, 중소지주등)을 별도로 하고 도시부문의 중산층(자영업자등)만을 이른바 뾰띠부르조아지로 파악하여 신중간계급뿐만아니라 구중간계급도 성장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이른바 「계층구조의 兩極化」경향은 한국사회에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는 兩極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국사회의 계층화경향을 通常과는 다소 달리 설명하게 되는 후자의 한 예를 보자.^{註6)}〈표1〉을 보면 전체구중간

〈表2〉 韓國社會의 階級構成(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

(단위 : %)

연 도	*1963	*1966	1971	1975	1980	1981	1982	1983
A. 자본가계급=행정·관리직종사자	0.7	0.7	0.6	0.6	1.2	1.4	1.1	1.2
B. 뾰띠부르조아지 = (4) ~ (6)	62.9	61.8	58.0	56.6	48.9	49.5	49.1	47.4
• 농촌 뾰띠부르조아지	49.6	46.4	38.9	38.5	28.4	29.1	26.4	24.9
• 도시 뾰띠부르조아지	12.9	15.0	18.2	17.6	19.8	19.7	21.9	21.6
a. 생산·운전종사자, 단순노무자	3.4	3.9	4.9	4.4	4.8	4.3	4.6	4.6
b. 판매종사자	8.6	10.0	10.7	10.9	11.9	11.8	12.6	12.5
c. 서비스직종사자	0.9	1.1	2.6	2.3	3.1	3.6	4.7	4.5
(5) 중무급가족종사자	2.9	3.6	4.5	4.1	4.6	4.6	5.7	5.3
• 전문·기술직종사자	0.4	0.4	0.9	0.5	0.7	0.7	0.8	1.0
C. 노동자계급 = (7) ~ (10)	36.4	37.4	41.4	42.8	49.9	49.1	49.8	51.4
* • 셀러리맨층	5.1	6.1	9.5	8.2	11.6	11.6	12.5	13.5
d. 전문·기술직종사자	1.9	1.8	3.2	2.3	3.1	3.2	3.4	3.6
e. 사무종사자	3.2	4.3	6.3	5.9	8.5	8.4	9.1	9.9
• 생산적노동자층	18.9	19.4	20.7	24.3	26.6	26.1	25.9	26.1
f. 농림어업종사자	8.6	7.8	7.3	5.6	3.8	3.4	4.0	3.4
g. 생산·운전종사자, 단순노무자	10.3	11.6	13.4	18.7	22.8	22.7	21.9	22.7
• 불생산적노동자층	4.2	4.7	6.7	6.2	6.5	6.9	7.0	7.7
h. 판매종사자	0.7	1.0	1.6	1.6	2.1	2.3	2.2	2.5
i. 서비스직종사자	3.5	3.7	5.1	4.6	4.4	4.6	4.8	5.2
• 실업자	8.2	7.1	4.5	4.1	5.2	4.5	4.4	4.1
합 계	100.0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서관모, 「현대한국사회의 계급구성과 계급분화」(1984), p.48에서 인용.

(6) 서관모(1984)

여기에서는 도시 뾰띠부르조아지는 도시증산층으로, 농촌 뾰띠부르조아지는 정통적개념에 따라 농촌증산층으로 각각개칭한다.

계급이 1960년에는 경제활동인구의 13%에서, 1975년에는 14.5%로, 또 1980년에는 20.8%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표2〉를 보면 도시 중산층은 이와 유사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의 자영농은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도시 중산층만을 살펴보면 중산층이 증가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촌 중산층을 동시에 살펴보면 전체 중산층은 감소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참조) 또 〈표2〉를 보면 농촌 중산층의 급격한 감소만큼 도시 중산층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도시중산층의 성장은 농촌 중산층의 이입과 충원에 기인한 것이지 도시자체 내에서의 성장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도시중산층의 성장속도가 농촌 중산층이 감소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므로, 도시 중산층은 실질적으로는 분해되어 가고 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거기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도시 중산층은 농촌중산층에 의해 성장하는 동시에 부단한 분해과정에 놓여 있다고 보이는 것이다. 이 견해를 보면 중간계급의 전반적인 성장은 이른바 뾰띠부르조아지의 성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신중간계급의 성장을 뜻하는 것이 된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화이트 칼라로 불리우는 신중간계급은 산업화의 전개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1〉에서 新中間階級에 포함시키고 있는 職種들은 신중간계급의 상층부분인 행정·관리직 종사자와 중간층 부분인 전문·기술직 종사자, 그리고 하층부분인 사무직, 판매직 종사자 등이다.

신중간계급이 진정한 의미의 계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를테면 階級正體感이나 계급적 동질성 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異見이 분분하다. 신중간계급의 계급적 성격에 관한 論議는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계급은 권위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며 따라서 거기에는 새로운 중간계급이 출현한다고 하는 다렌돌프의 주장을 계기로 특히 활발하게 된 감이 있다. 다렌도르프는 후기 산업사회에

〈表 3〉 뾰띠부르조아지 인구중 구성비 변화추세(1963~83)

(단위 : %)

연 도	1963	1966	1971	1975	1980	1983
농촌 뾰띠부르조아지	49.6	46.4	38.9	38.5	28.4	24.9
도시 뾰띠부르조아지	12.9	15.0	18.2	17.6	19.8	21.6
전문·기술직 종사자	0.4	0.4	0.9	0.5	0.7	1.0

* 자료 : 서관모,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성과 계급분화」 p. 48에서 재작성.

서의 계급은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생산관계에서의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기보다는 諸組織 내에서의 권위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는 대기업조직에서의 행정·관리적 종사자들과 경영자층의 출현으로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기업의 법적인 소유자—이 생산과정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는 사라졌으며, 주식회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유자체도 분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같은 所有와 經營의 분리현상으로 산업조직의 법적인 소유자는 '기능없는 자본가'로 전락되었으며, 산업조직의 상층 경영자와 관리자들은 생산과정과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의 資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적 자본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렌도르프에 의하면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노동자계급 내부에도 分化가 이루어져서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을 가진 숙련노동자와 정신노동자들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들은 생산노동자들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新中間階級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브레이버만 (H. Braverman)을 비롯한 一群의 사회학자들은 新中間階級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적 노동자들은 그들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의 성격상 생산적 노동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따라서 그들은 별개의 범주의 계급이 아니라 '새로운 노동계급'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국사회의 계급구성을 前者의 관점에 따라 분류하면 〈표1〉과 같이 나타나며, 後者의 입장에 따르면 〈표2〉와 같이 나타난다. 다음 장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중간계급을 중간계급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특유한 의식이나 가치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소유관계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中間階級이란 엄밀하게 보면 舊中間階級(쁘띠-부르조아지)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객관적인 계급결정요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표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화이트 칼라의 샐러리맨층을 노동자계급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하면 〈표1〉에 비해 노동자계급의 규모가 훨씬 더 크게 파악된다. 또 이러한 관점을 따르는 계급론자들은 행정·관리적 종사자나 최고 경영자층을 실제로 資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적 자본가'라 하여 이들을 자본가 계급에 포함시킨다. ((표2) 참조)

한 논문⁷⁾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는 화이트 칼라의 과반수 이상이 사무직이

(7) 정근식, "화이트 칼라의 성격규정을 위한 연구", 「韓國社會學 研究」제7권, 1984. 참조.

며, 계속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이 논문은 경험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한국사회에서는 화이트칼라계층의 노동계급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신중간계급의 下層에 屬하는 사무직·판매직 및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자신들을 생산직 노동자들과 분리하여 생각하고 있고, 또 그들이 육체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社會的威光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계급정체감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客觀的인 階級的 位置는 노동자계급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사회의 계층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간계급의 속성, 범위, 계급적 성향등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할 형편이다.

셋째, 勞動者階級의 量的·質的인 성장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계급구성을 그린 〈표4〉에서 잘 드러난다. 〈표2〉와 〈표4〉를 보면 한국사회의 계급구성 가운데 勞動者階級이 차지하는 비중이 51.4%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샐러리맨층과 非生產的 勞動者層(판매직 종사자·서비스직 종사자), 실업자층을 제외한다고 할지라도 20%이상을 훨씬 넘는다. 60년대와 70년대를 통한 제1세대 勞動者層의 성장은 대량의 離農民들이 도시노동자로 편입된 데 기인한다. 그것은 다른 자료^{註8)}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973년도 노동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생산직 노동자중 농촌 출신자의 비율이 거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수치는 1983년의 조사자료에서도 대체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註9)} 獨立自營層은—이들의 離農의

〈表 4〉 韓國社會의 階級構成

(단위 : %)

연 도	1963	1971	1980	1983
자 본 가 계 급	0.7	0.6	1.2	1.2
쁘띠 부르조아지	62.9	58.0	48.9	47.4
노 동 자 계 급 (샐러리맨 층 포함)	36.4 (5.1)	41.4 (9.5)	49.9 (11.6)	51.4 (13.5)

주 :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 서관모,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성과 계급문화」(1984) p. 48에서 재작성.

(8) 노동청, 「여성근로자 실태조사 보고서」, 1973.

(9) 임영일, “이리지방 공단의 현황”, 「민중현실과 민족운동」, 돌베개, 1984.

원인은 대개는 빈곤에 있다기 보다는 자녀교육에 있다—都市로 이주하면, 도시 중산층으로 정착하게 되지만, 農村빈곤층은 공장노동자로 취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주변에 축적되어 周邊의 労動者層을 형성하거나 실업자로 남게 된다. 따라서 실직한 노동자층이나 취업을 기다리는 도시주변지대의 과잉 인구는 대체로 노동자계급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3. 社會階層意識

(1) 社會階層意識의 意義

序論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에 實在하는 社會的 意識으로서의 階層意識이란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階級意識이라고 할 것이다. 진짜의 階級의식은 사회변동과 깊은 관련을 지니는 성질의 것이다. 객관적으로 규정될수있는 계계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각 계급에 속하는 성원 각자가 계급적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客觀的인 階級은 사회변동과 사회발전에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社會變動에 階級이 관련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계급의 성원이 계급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때이다. 마르크스는 사회 성원이 계급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生產手段의 所有여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규정되는 계급을 即自的 階級이라고 하고, 그것이 사회변동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그들이 階級的 位置와 共同의 利益을 자각하여 階級意識을 지니게 될 때라고 말한다. 마르크스는 계급의식을 지닌 그런 계급을 即自的 階級과 구별하여 對自的 階級이라고 말한다. 물론 계급의식이 형성·발전되는 데에는 일정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마르크스는 계급의식의 조건으로서 첫째, 상대적인 계급이 可視的이고, 직접적인 경제적 경쟁관계에 있을 것, 둘째,同一한 階級狀況을 겪는 다수가 존재할 것, 셋째, 동일계급의 성원간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것, 넷째, 인텔리겐차의 선도력이 있을것등 네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

韓國社會의 사회계층의식의 변화를 살피는데 있어서는 계급의식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經濟的 제반조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社會經濟的 條件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 발전되는 계급의식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경험적인 수준에서 파악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이론바 계급의식이 함축하는 바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이 개념 속에는 階級的 所屬感 혹은 階級的 正體感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급의 위치와 다른 계급과의 차이, 계급이익, 나아가서는 계급유대를 자각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기든즈에 의하면 계급의식에는 다음의 세가지 수준이 있다.⁽¹⁰⁾ 첫째, 階級的 正體性을 인식하는 수준이다. 이것은 계급의식이 가장 덜 발달된 상태로 자기들의 계급이익이 다른 계급의 이익과는 상반된다는 갈등의식을 자각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利益葛藤에 관한 의식으로서의 계급의식이나 이 수준의 계급의식은 자기의 계급적 이익을 명확히 自覺하고 그것이 다른 계급의 이익과 상충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를 말한다.

셋째, 이론바 혁명적 계급의식의 수준이다. 여기에는 두번째 수준의 葛藤意識에 더하여 계급적 행동과 조직을 통하여 사회의 全般的 再組織이 실현될 수 있다는 신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세가지 수준 가운데서도 계급의식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두번째 수준인 갈등의식에의 도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든즈는 그러한 갈등의식의 자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階級의 隔差의 可視性을 들고 있다. 예컨대 단일 장소에 多數의 勞動者가 집결하는 大規模 工場의 出現은 葛藤意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산업이 발달하고 대규모공장이 생기게 되어 그것이 노동자계급의 갈등의식을 촉진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계급의식에 대한 논의는 이해를 달리하는 계계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계급의식에 대한 논의의 또 하나의 필요조건은 계계급의 범주를 획정(劃定)하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계급론자들의 일반적 방식대로 핵심적인 계급범주를 資本家階級, 勞動者階級, 그리고 中間階級으로 구획하여, 사회계층의식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資本家階級 社會의 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구성원의 수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정도 지속성을 갖는 계급적 존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대부분 勞動者계층과 종산층에 속하므로

(10) A. Giddens,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London:Hutchinson, 1973. P.112참조.

¹¹⁰ 사회계층의식에 관한 논의는 이 두 階級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마땅할 것이다.

(2) 勞動者層의 社會階層意識

한국인의 사회계층의식도 한국의 產業化의 性格과 역사적 발전단계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계급구조에 의해 구조적인 제약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사회계층의식이 고도로 발달되면 그것이 기존의 계급구조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韓國의 產業化過程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労動者層의 사회계층의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產業化가 추진되고 資本主義的發展이 전개되어 갈수록 계급간의 갈등은 심화되리라고 하는 것이 社會階層論者들의 通說이다. 그러나 引用文에서 볼 수 있드시 한국의 노동자층은 지난 25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어떤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 보다도 지극히 현신적 이었다고 할것이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서구의 선진 산업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특정한 형태의 혁명운동이나 혁명적 가능성은 초기의 노동자 계급 형성기의 특징임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자 계급의 형성기에 있어서 이같은 일반화된 견해와의 유사성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정권의 정치적 안정이나 산업화의 과정을 위협하였던 대규모의 산업소요는 한번도 없었다.¹¹¹

한국의 노동자층이 이렇듯 현신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꾸어 말하면 한국의 제1세대 노동자층의 사회계층의식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의 노동자층이 서구사회의 노동자들의 그들과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갖게 된 데에는 먼저 국가와 경영자의 노동정책의 영향을 들수가 있을 것이다.

노동자층의 사회계층의식의 형성을 제약하는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산업화의 급속한 추진을 들 수가 있다. 한국과 같은 이른바 後發產業國家는 각

(11) 참고로 自營農層을 별도의 계급범주로 制定하여 한국사회의 계급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自營農民層의 사회계층의식을 도시의 중간계급의 사회계층의식과 구별하지 않고 중간 계급으로 일괄하여 다룬것은 이글의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는 사회계층의식에 관한 기왕의 연구들이 미흡한데다가 농민의 사회계층의식에 대한 연구는 아예 본격적으로 행해진 적이 없었는데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할것이다.

(12) 최장집,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주의적 통제”,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5, p. 191.

계층이 意識形成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어렵다. 서구사회의 경우 勞動階級이 형성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생산관계 속에서 정착하고, 일정한 수준의 階級意識을 갖춘 階級으로 성장되는데는 시간적으로 대략 1세기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¹³⁾ 이에 비해 한국사회는 계층의식이 형성되기에는 역사와 시간이 너무 짧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와 경영자의 통제와 급속한 산업화라는 제약요인 외에도 노동자층의 사회계층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또하나의 요소로 전통적 문화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는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사회규범의 영향력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우리의 勞動者 중에는 職場을 내집처럼 여기고 고용주들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일한다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는 이른바 근대적인 勞使觀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고용주와의 관계를 계약관계나 노동의 전유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혈연적이고 상하적인 家族關係로 받아들이는 경우 생산조직 내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계급적인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계층의식이 자리할 여지가 좁아지게 됨을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한국의 노동자층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그 내부구성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더 자세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대량의 이농민들에 의해 성장한 제1세대 노동자층의 형성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부문의 제조업 노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表 5〉 제조업 부분의 취업인구 변동
(단위 : %)

	1963	1973	1977	1980	1981
경 공업	60.7	60.6	55.4	51.2	51.7
중화학공업	39.3	39.3	44.6	48.9	48.2

*자료 : 이대근, 「경제개발과 구조변동」, 『한국사회의 재인식』, 1985, 한울, p. 187
과 p. 190에서 재작성.

(13) E.P. Thompson, The Making of English Working Class (Vintage Books, 1966) 참조.

또 생산적 노동자들중 여성노동자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註14) 한국의 제1세대 노동자층의 형성과정에서 보이는 이러한 두가지 구조적 특징은 노동자들의 계층의식형성의 초보단계인 계급적 正體性의 획득을 제약하는 규정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른 나라의 노동자층에 비해 한국의 노동자층의 평균근속연수가 아주 짧으며 이직률이 높다는 점이 이것을 잘 입증해준다(〈표6〉참조). 농업부문에서 유출되어 도시산업부문의 핵심적·주변적 노동시장으로 유입되어온 노동자층은 그들의 유동적인 존재조건 때문에 階級的 正體性을 획득하거나 계층의식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한국 노동자층에게서 천직의식이나 직업의식을 저조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생산적 노동자들 중 여성노동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또한 노동자층의 사회계층의식의 형성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70년대 까지 여성노동자들의 80%이상이 “결혼 후에 그만두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난다.^(註15)

요컨대 노동자층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좋지 못한 탓으로 勞動者로서의 사회적 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이익을 집단적인 수준에서 구현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勞動者로서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이탈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한 계급을 특징지우고 그 계급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작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그 계급의 문화이다. 동일계급의 성원은 유사한 삶의 조건을 공유

〈表 6〉 학년별 평균 근속 연수의 한일간 비교(1978)
(단위:년)

구 分		전 체	대 출	전문대출	고 출	중출이하
한 국	남	3.2	4.5	3.8	3.3	2.6
	여	1.9	2.(9	2.6	2.2	1.9
일 본	남	10.5	8.9	10.1	10.1	11.7
	여	5.8	3.4	3.5	5.1	7.2

자료:『노동경제 연감 '81』.

(14) 김백산, “70년대 노동자 계층의 상황과 성장”, 「민중」제1권, 청사, 1983. P.41
참조

(15) 임영일, “노동자의 존재조건과 의식”,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 둘째개,
1985. P.236 참조.

하기때문에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유사하며, 그리하여 文化的으로 他階級과 구별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대중매체와 大衆文化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었지만 노동자층의 생활과 밀착될 수 있는 勞動文化가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勞動文化의 不在는 노동자층이 일상생활 속에서 동질적인 의식과 태도를 재생산하는데에 상당한 제약이 된 것이다.

노동문화가 위축된 데에는 大衆媒體를 통해 中產層의 文化가 사회의 전영역에 일률적으로 확대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소비수준이 향상된 상층 노동자층은 중산층과 비슷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층은 그러하지 못하다. 물론 도시의 노동자층은 그래도 농촌의 노동자층보다는 여러가지 면에서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農村노동자층의 社會的地位가 떨어진 때문이지 勞動者들이 지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회집단들의 地位評價에 관한 경험적 연구^(註)는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노동자층은 경제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계층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表 7〉 한국사회 계급구성 ('81~'83)

(단위 : %)

	1980	1981	1982	1983
자 본 가 계 급	1.2	1.4	1.1	1.2
도시 빈민·부르조아지	19.8	19.7	21.9	20.7
농 민	28.4	29.1	26.4	27.6
노 동 계 급	49.9	49.1	49.8	49.5
화 이 트 칠 라	11.6	11.6	12.5	12.8
생 산 적 노 동 자	26.6	26.1	25.9	26.1
불 생 산 적 노동자	6.5	6.9	7.0	6.5
실 업 자	5.2	4.5	4.4	3.3

주 : 1)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것임.

2) 농업노동자는 농민이 아니라 생산적 노동자로 분류됨.

*자료 : 서관모, 앞의 책 p.48에서 재작성.

(16) Kyong Dong Kim & On-Jook Lee, "Middle-Class Perception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Korea", Journal of East & West Studies, Vol. 14, no.2, 1985

(3) 中間階級의 社會階層意識^{註(17)}

여기에서 말하는 중간계급의 범주속에는 전통적인 구중간계급인 자영업자층 혹은 중소상품생산자층 외에도 경영·관리·행정직과 전문기술직·사무직 및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른바 신중간계급을 다같이 포괄한 다렌도 르프와 같은 계층론자를 뿐만 아니라 폴란짜스와 같은 일부 계급론자들도—이들은 신중간계급을 newmiddle class라고 하지 않고 newpetty bourgeoisie라고 부른다—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전적인 자본주의 시대의 뿌리·부르조아지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어느정도 계급적인 동질성을 가진 새로운 중간계급이 존재하게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계급의 개념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더구나 한국인은 경제적인 생산관계에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권위관계에서의 위치도 개인의 지위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중간계급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큰 관심을 쏟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갖는 특정의식때문일 것이다. 사회계층의식의 수준을 계급적인 정체감이나 소속감과 어떤 한 계급이 갖는 意識一般으로 구분하는 경우, 중간계급의 경우는 前者의 측면에서 다른 계급과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간계급은 계급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다른 계급에 대해서 특정한 갈등의식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세계관이나 사회의식에 있어서는 다른 계급과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데에서 다른 階級과 구별되는 것이다.

폴란짜스에 의하면 중간계급의 의식의 핵심적 요소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특징지워 진다.^{註(18)}

첫째, 온건한 改革主義的 성향을 갖는다. 중간계급은 사회적 불평등이나 체제의 모순을 혁명적인 變化를 통해서가 아니라 制度의인 改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 個人主義的 性向을 갖는다. 중간계급은 개인적 업적이나 성취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지위하강을 두려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류계

(17) 한국사회의 중간계급의 사회계층의식에 관해서는 기존연구물을 충분히 참고할 거를이 없기에 거기에 관한 일반론으로 대치한다.

(18) N. Poulantzas,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 NLB) 1975p:291~294 참조.

층에 매료된 채 끊임없이 승진과 경력, 그리고 상승이동을 열망한다. 라이트 (E.O. Wright)는 중간계급의 개인주의적 성향에는 두가지 서로 다른 형태가 존재한다고 말한다.⁽¹⁹⁾ 즉 구중간계급과 신중간계급의項이 그것이다. 舊中間階級의 개인주의는 개인적인 自律性을 強調하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네가 너자신의 우두머리가 되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라는 식의 사고방식과 같은 것이며, 新中間階級의 그것은 경력위주의 개인주의로써 철저하게 組織人이 되어組織 안에서의 상승이동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셋째, 權力 物神主義의 성향을 갖는다. 중간계급은 그들의 독특한 계급적 상황에서 이를테면 독특한 國家觀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國家는 본래 中立的인 것으로서 多樣한 제階級을 중재하는 媒介者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와같이 개인의 성취와 책임을 가장 중요시하는 중간계급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階級이라는 포괄적인 집단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급正體性이나 본래적 의미의 階級意識이 존재할 여지가 좋아지게 될 것이다.

社會的인 威光의 면에서도 중간계급은 노동자층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화이트 칼라층은 일의 조건에 있어서도 생산적 노동자와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위광을 누린다고 할 수 있다. 중간계급이 노동자층과 상이한 지위를 누리는데에는 양자간에 市場能力의 차이가 현격하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간계급과 노동자계층의 시장능력의 차이는 주로 중간계급이 지닌 교육 및 기술적인 자격요건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시장능력의 차이는 수입, 생활양식 및 사회적 위광에 있어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이상으로 중간계급의 가치지향 및 열망의 수준을 비롯, 그들의 의식일반을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위에서 중간계급의 계층의식에 관한 일반론의 일부를 그렸거니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간계급의 의식 그것보다도 먼저 중간계급의 정체와 속성을 규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하리라고 생각된다.

4. 社會階層意識의 展望

社會의意識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조건과의 상호작용 속에

(19) E.O.Wright, 1973. Class, Crisis & the State, (London : NLB) 1973. P.61 참조.

서 규정받고 재형성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앞에서 고찰한 계급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사회계층의식의 변모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의 변화의 윤곽을 대강 그려볼 수는 있을 것이다.

社會發展은 소득의 양적인 증대나 산업의 성장으로 측정되는 경제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多元化와 平等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社會發展은 量的인 성장에 더하여 사회 각 집단간의分化와 多元性이 인정되며, 집단이나 계층간의 蔓藤이 공개적으로 표출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 계층간의 격차라 좁혀질 수 있으며, 사회이동의 기회와 통로가 개방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이해를 달리하는 集團간의 蔓藤이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사회계층의식은 각 개인이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못지 않게 각 계층이 공유하고 있는 갈등의식과도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갈등이 어떻게 표출되며 또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느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화과정에 의해서 형성되어온 핵심적인 사회범주들의 계층의식이 전체사회나 국가의 발전이라는 공통목표를 향해 어떻게 화해될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컨대 이제까지의 산업화 과정에서 그들의 일에 혼신몰입해온 근로자나 관리자층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정도의 혼신몰입을 지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산업화나 사회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이를테면 物的인 자원의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여기 계층의식의 전망과 관련, 몇 가지만을 지적해보자.

첫째, 노동자층의 계층의식은 蔓藤化할 소지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 과거 25년간의 산업화 기간에 어느 사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각자의 소임에 혼신몰입해온 노동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자세와 의식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낙관만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¹²⁰ 무엇보다도 종래의 경제발전이 성장위주로 이루어져 온 탓으로 크게 벌어진 계층간의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 그 주된 원인이 될 것이다. 물론 지난 몇십년간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사회이동의 양과 폭이 커진 것도 사실이며, 정체된 사회와 비교할 때

(20) Kyong-Dong Kim & Hae-Young Lee, "The Meaning of Work & Labor Commitment in Korea", Social Science Journal vol.5, no.1, 1978.참조

세대 간의 지위이동 또한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구조적 차원에서의 계급간의 이동과 교류도 반드시 그런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²¹⁾ 또 그러한 경향과 함께 계급의식도 원초적 형태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 잘 나타나고 있다.

“……경제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해온 勞動者들은 物質的인 地位의 면에서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소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²²⁾라고 전망되는데에는 계층간의 격차의 심화와 分配의 不均衡이라는 측면 외에도 노동자층의 내부구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70년대 후반에 이르면 노동자계급 내부의 핵심층이 한국노동자의 제1세대로 불리우는 경공업부문의 노동집약적인 단순노동자층에서 기간산업 및 중화학 공업분야의 숙련·남성노동자층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노동자층의 사회계층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중간계급의 양적인 확대는 지금까지의 추세보다는 다소 문화되리라 전망되지만 그러나 어느 수준까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 중간계급이 분해되고 감소된다 할지라도 신중간계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기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로 신중간계급으로의 사회이동과 지위상승이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중간계급의 양적인 확대가 반드시 개인주의 의식을 확산시키리라고 단정 하기는 어렵지만, 중산층 文化的 확산을 고려하여 중간계급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확산될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개혁주의적인 경향과 함께 체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중간계급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급격한 변화보다는 체제의 안정을 원망하기 때문에 사회발전을 더디게 할 수도 있지마는 한편으로는 사회를 합리화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간계급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상승이 동에 대한 과열로 경쟁과 갈등을 유발시킬 소지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뒤르켕이 지적한 바와같이 분업화된 산업사회의 보편윤리로서 기여할 수

(21) 서관모·홍두승, “한국사회계층의 실태와 개념상의 문제”, 思想과 政策, 京鄉新聞社刊, 1984, p. 61 참조.

(22) Kyong-Dong kim & Hae-Young Lee (1978), P. 52

도 있을 것이다. 또 개인적인 成就와 業績을 중시하는 중간계급의 의식은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잔존하고 있는 歸屬主義의 요소를 감퇴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계층간의 사회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開放社會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개인의 지위를 귀속적 요인에 따라서 평가하는 경향이 덜 해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는 경향이 보편화되어야 할것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김채운

1964 “사회계급의 개념도식”, 사회학 논총1,

1975 “사회계층개념의 연구”, 省谷論叢 6,

김영모

1982 한국사회계층연구, 일조각

김경동

1983 “현대사회와 중간계급”

김경동

1983 경제성장과 사회변동, 한울

김경동·이온죽

1985 “Middle-Class Perceptions of Economic Development & External Relations in Korea”, Journal of East & West Studies , vol.14, no2.

김경동·이해영

1978 “The Meaning of Work & Labor Commitment in Korea”, Social Science Journal vol. no.1

김형기

1984 “임금노동자의 내부구성”, 한국자본주의론, 까치

1985 “노동자계급의 성장및 내부구성의 변화와 주체형성”,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 둘베개,

서관모

1984 현대 한국사회의 계급구성과 계급문화, 한울,

임영일

1985 “의식의 사회성과 노동자의식”, 오늘의 책 No.5, 한길사

1985 “노동자의 존재조건과 의식”,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 돌베개
한상진

1984 “계급이론과 계층이론” 한상진(편), 계급이론과 계층이론, 문학과 지성사
홍두승

1983 “직업및 계층구조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있
나, 현대사회연구소

1983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서울대 사회학회(편), 한국사회의 전
통과 변화(이만갑 교수 회갑기념논총), 법문사

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vol.5, no3, 1983

1980 “Two Channels of social Mobility” 사회과학논집, 제5집, 1980
최장집

1985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주의적 통제”,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Giddens, Anthony, 1973 *The Class Structure of the Advanced Societies*
(London:Hutchinson) 1973

Ossowski, Stanislaw, 1981, *Class Structure in the Social Consciousness*(NY : The Free
Press) 1963;정근식(역), 사회의식과 계급구조, 인간

Poulantzas, Nico, 1975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London : LNB) 1975

Thompson, E. P. 1966, *The Making of English Working Class*(Vintage Books)

Wright, Erik Olin, 1973, *Class, Crisis & the State*(London : NLB)